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해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fe History of Intermarried Korean Men's Family Dissolution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김민경**

Dept. of Childwelfare, Namseoul Univ.

Professor : Kim, Min-Kyeong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life histories of intermarried Korean men for more than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ir family dissolution. Researcher had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who were selected by purposive sampling from the intermarried Korean men with dissolved family conditions. Researcher employed the holistic-content approach to analyze the interviewed materials. Mandelbaum(1973)'s conceptual framework-dimensions, turnings, and adaptations has been taken to present the analyzed contents.

The dimensions of men consisted of 'request of continuous money', 'limitation of comprehensible communication', 'premise terminated marriage: leaving home', 'inassurance of marriage maintenance'. Turnings involved 'abandoned person', 'parents' excessive protection', 'community among themselves', and 'greedy mediator'. Adaptions were observed by 'various feeling card', 'worrying about men's child', 'expecting the future', and 'stopping on foreigner as a partner'. Discussion and suggestion were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examination of marriage genuineness, Korean men's preparation of marriage, intervention and service for their mental health, supports for their children and strengthen of multicultural family center's function for dissolved family.

▲주요어(Key Words) : 국제결혼한 한국남성(intermarried Korean men), 결혼해체(family dissolution), 생애사 연구(life history research)

I. 연구의 목적

다문화가족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계층으로 부각되면서 정부, 민간단체, 학계 등 다양한 매체의 주목과 관심을 받아왔다. 국제결혼이 개인의 선택의 결과이든 사회구조적 문제, 세계의 경제사회로 인한 것이든 정책과 실천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은 역사, 문화, 지역적 특성들과 개인의 정서, 심리적 기저들이 밀접하게 교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이뤄지는 남녀간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남녀는 일정기간의 교제를 통해 서로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부부들은 거리상 혹은 경제적 비용 등의 이유로 상호탐색과 이해과정을 갖기는 어려운 처지이다. 사전의 정확한 정보파악의 부족 등으로 인한 조급한 결혼은 일생생활에서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며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2000년 중반부터 이들 가정의 불화, 폭력, 이혼 등이 급격히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10-327-C00001)

† 2011년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 교신저자 : 김민경 (E-mail : mkm35@nsu.ac.kr)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다. 2008년 한국인부부의 이혼건수는 2004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된 반면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11,692건으로 총이혼건수의 9.4%이며 특히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과의 이혼은 2008년 7,962건으로 전년보다 39.5%가 증가하였고 2009년 8,300건으로 4.2% 각각 증가하였다(통계청, 2010). 국적별로 혼인누적건수가 많은 중국 5,562건(67.0%), 베트남 1,292건(15.6%), 필리핀 285건(3.4%), 몽골 227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혼사유는 성격차이(46.6%), 경제문제(14.4%), 배우자부정(8.3%), 가족 간 불화(7.4%) 등으로 나타났었다(통계청, 2010). 이들 동거기간이 5년 미만인 부부가 85.4%이며 평균 동거기간이 3.1년으로 나타나 결혼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혼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수치는 이혼신고서에 신고한 내용을 집계, 분석한 것으로 별거 등의 사실이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더 높은 수치가 부부간 별거와 이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적응과 함께 결혼해체에 대한 예방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해체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다문화가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왔지만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부부에만 집중되어 다문화가족해체 당사자를 위한 관심자체가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은 소외된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연구에서는 이혼이나 가족해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본 국내 연구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가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등 주요학회지와 국회도서관에서 논문검색을 한 결과 실제 이혼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혼의사에 대한 연구(박재규, 2007)와 최근 한국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사례를 중심으로 결혼을 선택, 이혼을 선택하고 이혼후의 삶에 대해 분석한 연구(문경연, 2010)가 있다.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비교적 상세하게 다문화가족형성(혼인), 해체(이혼)추이분석, 다문화가족의 이혼사유 및 이혼과정상의 문제파악, 이혼, 사별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존재할 뿐이다(김이선 등, 2010).

실제 다문화가족해체 비율이 상당히 높고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연구 대상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별거나 이혼 등의 가족해체문제에 대해 등한시되거나 기피되는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또한 실천영역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가 활약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정부에 의해 주도된 다문화정책에서 주요 지원대상이 된 사람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사회통합지원방안은 가족을 유지하는 것과 아동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인구대책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공적 지원체계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동화와 적응을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착 이혼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일부 부부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프로그램만으로 늘어나는 국제이혼율을 막긴 역부족이어서 국제결혼부부의 해체에 대한 현장지향적인 실천과 그들의 실제적인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정책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족형태로 등장한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는 국제결혼과정의 특수성,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취약성, 결혼이민자의 불안한 지위(체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가족의 해체에 비하여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크다.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들 모두 급변하는 사회의 중심에서 있고 아직도 순수혈통, 단일민족같은 신화가 작동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그들의 선택과 결단 역시 갈등과 긴장이 내재하고 있다. 이혼을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규정하는 위기모델(crisis model)로 볼 때 이혼은 결혼생활의 또다른 선택이기 때문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혼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특히 이혼은 부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부모와 자녀에게까지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해체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해보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해체에 대한 정확한 개입방향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들을 토대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남성들의 이혼동기, 배우자와의 관계파괴 내용과 과정 그리고 이혼후 삶의 질적인 변화 등을 그들의 생애와 사회구조와의 맥락에서 위치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환경과 개인의 선택적 행위의 발현영역에서 문제를 보기 위해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생애사 접근법은 사회적 배제 관점에 부응하는 연구방법으로 탐색되고 있다(Rustin & Chamberlayne, 2002). 또한 과학철학에서 말하는 구성주의 혹은 해석주의의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현상은 어떤 정해진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맥락에 놓인 사람들의 집단적 사고와 경험에 의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성격의 것이다(Guba and Lincoln, 1994). 개인들의 삶을 형성하는 객관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의식과 주체성의 차원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제결혼부부의 해체과정과 결과의 다차원성과 역동성을 분

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보인다.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해체를 생애사 접근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두가지 중요한 방법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외부인의 관점이 아닌 내부자로서 국제결혼후 이혼한 외국인여성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를 빌어 해체경험을 듣는 것은 주변성의 맥락을 읽는 것이다. 둘째, 생애사 접근법에서 시간은 삶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해체의 의미는 그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속에서 한국남성의 일상적 삶의 맥락에는 개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했던 가정의 상황 그리고 그 가정이 속한 계층적 상황 및 한국사회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리한 가부장적 결혼제도의 불평등한 남녀관계가 교차되었을 것이다. 이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삶의 맥락에서 겪는 경험, 그 경험과정에서 발생한 이혼선택, 이혼전과 후의 과정속에서 관계경험과 변화, 이러한 생의 사건들이 이혼 후 현재의 삶속에서 어떻게 의미부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가족해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해체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실천방안 모색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인 한국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천하다(엄명용, 2010). 이들 국제결혼후 한국남성들의 결혼해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더욱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존의 부부갈등요인 연구, 이혼통계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상담결과 자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제결혼부부의 다양한 갈등요인은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배우자간 성격차이(설동훈 등, 2005; 정기선 등, 2007)와 문화차이(김오남, 2006; 장은정, 2007; 채옥희 · 홍달아기, 2008), 경제문제(김정훈, 2007; 구차순, 2007; 채옥희 · 홍달아기, 2007), 남편의 음주(설동훈 등, 2005; 최금해, 2007), 많은 연령차이(최금해, 2007; 최연실 등, 2008), 의사소통(김오남, 2006; 김정훈, 2007) 등이 꼽히며 특히 문화차이가 국제결혼부부의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한국인 남편을 비롯한 가족원들로부터의 각종 폭력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핵심적 요인이다(김이선 등, 2010; 설동훈 등, 2005; 정기선 등, 2007).

또한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입장을 대변한 연구들로 이루

어졌는데 일반적으로 국제결혼한 남성들이 가부장적 사고와 무지가 가정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가정폭력자라기보다는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자라고 하였다(채옥희 · 홍달아기, 2008). 우리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이 천대받은 것처럼 이들과 동일시한다고 하여 디아스포라적 위치로 자기성을 재구조화한다고 하였다.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에 대한 일방적 가해자적 시각을 수정하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분석이 시도된 바 있는데 김두섭과 이명진(2007)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이혼한 국제결혼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부간 연령과 교육수준의 상이성이 결혼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연령격차는 혼인지속기간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해체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2009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운영하는 콜센터의 다문화가족상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 33,550건(중복체크)의 불만사제가 접수되었는데 언어갈등(34.7%), 이혼수속과 양육권 분쟁 등 법률문제(20.4%), 고부갈등을 포함한 시댁식구와의 문제(18.0%), 체류간연장을 둘러싼 문제(16.0%), 부부갈등(11.7%), 가정폭력(11.6%), 가출(5.3%) 순이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9). 대부분의 피상담자가 언어갈등 외에 추가문제를 한두가지씩 가지고 있으며 언어갈등 다음으로 국제결혼부부는 이혼에 대한 상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는 지난 2008년도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통계를 분석, 발표하였다. 결혼 3년 미만의 이혼상담 비율은 49.8%에 달했으며 전체의 40.9%가 별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아내가 직접상담한 경우 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5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33.4%, 1호 '배우자의 부정' 및 2호 '악의의 유기' 각 6.8%순으로 나타났다. 6호 내용 중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간 갈등, 성격차이, 알콜 중독, 결혼조건속임, 도박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상담사유는 6호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간 갈등, 경제갈등, 잦은 외박가출, 성격차이, 결혼조건속임 순이며 다음은 3호 16.3%로 외국인여성도 원인제공자로서 존재하며 남성과 여성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연(2010)은 한국결혼이주여성의 이혼사례를 이들이 결혼에 대한 어떠한 인식과 동기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며 어떠

한 상황에서 갈등을 가지고 갈등을 겪고 이혼을 선택하는지 이혼후의 삶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한국남편과 외국인 여성간 기대가 달라 갈등이 심각해지고 여성들은 가출을 감행하며 남성들은 아내의 가출에 대해 가출신고와 이혼소송으로 대응한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이혼소송제기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중국인네트워크, 시민단체, C교회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김이선 등(2010)은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에서 다문화가족 이혼사유는 왜곡된 정보로 인한 결혼과정성의 문제, 외국인 혐오성·여성인권침해성 폭력, 체류자격을 둘러싼 갈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둘러싼 갈등, 경제적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양식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의 이혼과정상문제로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의 한계 및 상담기회부재와 국경을 넘은 이혼진행의 어려움을 갖는 이혼 절차,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자녀에 대한 권한을 둘러싼 국경을 넘어선 갈등을 포함한 가족관계정리, 다문화가족들은 체류자격의 불안정성, 생계의 어려움, 주거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결혼생활의도없이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며 일부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한국입국을 위해서 국제결혼을 이용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김이선 등, 2010).

국제결혼의 이혼에 대한 국외연구도 드물게 이루어졌다. 인종간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는 동질적 결혼보다 더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제시한 반면 성공은 더 낮은 이혼율과 결혼만족과도 관련되었다(Bahr, 1981; Fu et al., 2001; Goodman, 1991; Heaton, 1984; Shehan et al., 1990). 백인부인과 비 백인남편간 결혼은 동질혼이나 다른 유형의 인종간 결혼보다 높은 이혼의 위기에 직면하였다(Fu, 2000). 같은 맥락에서 인종간 결혼은 인종내 결혼보다 유대관계가 더 약했다고 보고했다(Fu, 2006). 또한 결혼시 연령은 이혼위기에 노출된 시간과 관련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한 사람은 이혼위기에 노출된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이다(Preston, 1997).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도 결혼을 유지하려는 능력부족으로 결혼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lumel, 1992; White, 1990). 따라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양상을 볼 때 한국인부부보다 높은 평균연령차이와 사회경제적 이유 등의 결혼동기는 가족해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연구참여자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의도적 표집은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표집방법으로서 특정 현상에 대한 서술과 해석, 통찰과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유태균, 2001; Patton, 1990). 연구참여자들은 국제결혼을 하여 별거나 이혼한지 최소한 1년의 기간이 소요된 한국남성 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적어도 가족해체를 경험한지 1년 이상이 지나서 해체전과 후의 생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결혼후 이혼한 남성 각 구성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남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쉼터, 상담센터와 복지관 등의 도움을 받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직후 면접사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후 그 사례와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다른 사례를 기관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소개받는 방법인 눈덩이표집(snowballing sampling 또는 chain sampling)을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0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5명의 연구 참여자를 발굴하여 면접하였다.

생애와 자료의 종류는 출생이후의 전 생애에 관한 이야기인 전체 생애사(complete life history)와 일정기간 중의 특정 주제에 국한된 이야기인 주제별 생애사(topical life history)로 나누어 질 수 있다(박재홍, 1992). 본 연구에서는 주제별 생애사 자료 수집을 통해 한국남성의 국 결혼해체라는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 일정기간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후 결혼생활과 해체결정이유, 해체후 적응과 생활까지를 밀도있게 살펴보고자 결혼전후 경험에 대한 생애에 집중되어 조사되었으며 결혼이전의 생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자료에 참조하였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 일대일 심층면접을 주로 진행하며 연구 보조원이 면접 과정을 함께 하면서 주요 사항을 기록하고 면접의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녹취된 자료는 면접이 끝나는 대로 필사본으로 전환하였다. 필사본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관련된 사진, 서류 등을 요구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 1인당 평균 3회이상, 시간은 1회당 120분에서 150분 정도 소요하며 면담 후 개인 사례별 분석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면 전화 통화나 가정 방문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보충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사정에 따라서 참여자의 직장이나 집 근처 카페 등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최대한 배려하였다.

2. 자료분석

연구 참여자의 생애사로부터 의미를 찾아나가기 위해 본 연구는 Liebich 등(1998)이 범주화한4개의 분석방법 중 통합적 내용분석(holistic-content approach) 방법을 사용하였다.

Liebich 등(1998)은 생애사 자료 분석방법을 크게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통합적인 내용분석, 범주적 내용분석, 통합적 형태의 방식, 담론 분석 등이다. 통합적 내용분석은 개별 생애사를 분석의 초점으로 하여 각 생애사의 주요한 테마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각 생애사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이다(한경혜, 2004).

분석의 근거가 된 자료는 심층 면접한 내용을 녹음한 후 필사한 것을 근거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생애사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Mandelbaum(1973)이 제안한 삶의 영역(dimension),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의 3가지 개념 틀로 분석하였다. 삶의 영역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이후의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차원을 분석하고, 전환점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해체를 결정하도록 전환점을 갖게 한 선행 조건들과 전환점이 된 주요사건들을 알아보며, 적응에서는 해체 후의 각자의 고유한 적응양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첫 데이터를 수집하고서 시작하며 제시된 분석 방법과 분석틀에 근거하여 이후 생애정보가 수집되어 가면서 분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문제

질적 연구에서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가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과 자료의 다원화,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 전략을 적용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경우 참여자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진행과 자조모임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면담후에도 연구참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둘째, 자료의 다원화를 통해 한 가지 이상의 자료출처를 사용하며 연구 참여자들의 일기나 편지, 참여자와 기관담당자와의 면접 자료, 현장기록노트, 메모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포괄적인 이해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셋째, 연구의 민감성을 높이고 편견

이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생애사 연구방법과 다문화 연구경험이 풍부한 동료교수 2명과 자문진에게 지속적인 조언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발견한 개념과 해석의 결과에 대해서 지원센터나 연구참여자의 집등을 다시 방문하거나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연구중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상 비밀보장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였다. 면접 자료는 사전에 연구동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녹음하고, 필사 후 즉시 폐기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비밀정보에 대해서도 연구목적에 필요한 기록 외에는 누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인명과 지명은 모두 익명과 이니셜로 처리하고, 연구논문의 발표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를 얻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 생애요약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1>에서 제시하였다.

1) 정

정씨는 시각장애인이다. 베트남에서 온 비장애인과 1999년에 결혼했고 2000년에 종결되었다. 사기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유는 여성이 처음부터 돈가져 갈려고 온 것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결혼할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증개비용이 더 들어갔다. 부인은 한달에 한번 가출하고 일주일에 한번 가출하고 하더니 아예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다. 민사소송으로 이혼을 했으며 왔을 때부터 안살려고 왔다는 느낌을 갖었다고 하였다.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를 키우며 살고 있고 수급자였는데 얼마되지 않은 논담과 소 10마리 때문에 제외되어 안타까워하고 있다. 현재는 장애인수당 30만원 받고 있고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사례	연령	결혼 기간 (월)	본인직업	자녀수	소득 (만원)	종교	배우자 출신국	학력	결혼유형	전배우자 나이차	이혼·별거 기간
정	42	14	농업	1	50	없음	베트남	중졸	초혼	17	10년
이	30	32	농업	1	80	기독교	베트남	고졸	초혼	2	30월
박	43	17	자활	1	80	기독교	베트남	고졸	초혼	15	38월
신	34	18	공공	0	60	없음	베트남	고졸	초혼	10	18월
양	46	2	노동	0	140	없음	베트남	고졸	초혼	22	13월

*이의 연구참여자-사례(이) 어머니, 사례(박) 부모, 사례(신) 아버지

허리수술과 눈수술 모두 성공적이지 않아 힘든 삶을 살고 있거나 열심히 살아야한다는 마음은 강하다.

2) 이

이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나 지적 능력이 보통사람보다는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30대가 되기 전에 베트남여성과 결혼했는데 결혼 4년만에 부인이 딸과 함께 베트남 친정으로 가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확인해 본 결과 부인이 다시 한국에 돌아왔으나 연락을 끊은 상태로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연구참여자의 아버지가 직접 베트남친정에 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으나 그 원인을 이야기해주지 않아 한국에 돌아왔으며 그 이후 한국에서도 찾아보는 노력을 하였으나 찾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부인도 부인이지만 아이만을 찾고 싶은 심정이다. 친정으로 가기전 돈을 요구했는데 친정아버지와 오빠의 핑계를 대고 시댁에서 준 돈을 챙겼다. 가기전 신발을 챙기고 한국에 와서도 공항으로 마중 나오지 말고 버스터미널로 나오라고 하는 행동들이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부인에 대해 화나고 배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을 국제결혼의 희생자로 생각하고 특히 한국내 중간책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3) 박

박씨는 소박하면서도 신중함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위해 사회복지도 공부하고 있으며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부인친정에 몇 번 돈도 보내주고 베트남에 있는 장모님도 모셔와서 6개월 동안 좁은 방에서 같이 사는 등 노력을 많이 했으나 부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친정에 돈보내달라고 하는 요구를 형편상 매번 들어줄 수 없었다. 부인이 가출 전 고구마케는 일을 하였다. 부인이 자녀를 낳은 후 견기전 가출을 두 번 하였고 데려왔는데 아예 이혼을 요구하여 지금은 이혼한 상태이다. 신앙심이 깊어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부인이 친구집에 놀러갔다 온다고 나간 것이 마지막이었다. 현재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사는 것이며 이 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라고 하였다. 결혼후 분가해서 살다가 지금은 어머니와 지병을 가지고 있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얼마되지 않은 논농사는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신다.

4) 신

신씨는 일상생활과 대화에는 문제가 없으나 약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도 왜소하고 약해보이며 심하게 마른 편이다. 대화할 때 안정적이지 않고 상황판단이 현실적이지 않다. 신씨 아버지가 베트남에 같이 가서 신부에게 미리 이들이 정상인 아니며 '조금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신부는 괜찮다고

하여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도 배우러 다니고 이곳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시댁가족들하고도 문제없이 잘 지냈다. 가족의 말에 의하면 한국어 배우러 다니면서부터 태도가 변하더니 결국엔 가출을 하였다고 한다. 가출 후 전화가 간간히 오며 명절때에는 집에 들어와 한밤 자고는 다시 나가버린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국적취득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남편은 부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명절때만 오더라도 기뻐하고 부인의 입장을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아버지나 누나들이 웃도 시주고 관심과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출하여 가족들의 실망이 크다. 부인은 잠자리 거부와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 신씨는 부인이 쌀쌀맞고 여자에게 질렸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현재는 부인에 대해 가출한 상태여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아버지가 가출신고하려는 상태이다. 가족들은 여성이 다시 돌아와서 살 것이라는 희망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5) 양

양씨는 40여년 동안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왔으나 2년전 수술을 통해 청각을 회복했고 결혼도 하였다. 결혼후에도 아침 일찍 나가 밤 늦게 돌아와 부인과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었다. 집에는 부모님과 네식구가 살았는데 부모님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집에는 부인 혼자 있었다. 그러던 중 부락 사회복지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준다고 하여 부인을 보냈는데 처음엔 재미있어 하였으나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후 돌변하였다. 결국엔 가출하였다.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이 남성의 아버지가 인생의 권리를 주장하였는데 중학교 졸업후 농사만 짓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고등학교에 간 것이 최초의 반항이었다. 졸업 지금까지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살아왔다. 결혼하기 위해 베트남에 아버지와 같이 가고 지금도 월급을 아버지께 모두 주고 용돈을 타서 쓰고 있다. 양씨는 부인의 가출원인을 부인이 한국에 와서 결혼식 올리는 것을 싫어하고 한국생활에 대해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너무 시간에 바빠 돌보지 않았고 원하는 금반지를 사주지 않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책하였다. 부인은 평소에도 친정에 돈보내달라는 요구를 하여 일부는 들어주고 일부는 들어주지 않아 그 문제로 갈등이 있어왔다.

2. 삶의 차원들(영역)

1) 부인의 끊임없는 경제적 요구

결혼을 보는 사람(정상인)하고 1999년에 해서 2000년에 마무리했어요. 한마디로 사기 결혼했죠. 돈 가져갈려고. 식구들보고 그렇게 됐어요. (정)

돈 요구를 했어요. 베트남에 갈 때도 저는 200만원

준다고 했는데 밖에서 아버지에게 300만원을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많이 달라고하나 그러니까 오빠 결혼하고 애기엄마 아버지가 환갑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장인이 50대래요. 처음에 돈 보내 준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이 외할아버지가 비가 많이 와서 지붕이 무너져 다쳤다고 베트남에 몇 달 50만원씩 보냈어요. 한 4번 정도. (이)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친정에 돈 보내달라고 하고 살다보면 돈을 많이 요구하죠. 70-80 받아서 생활이 안돼요. 부인말대로 하면 생활이 안돼요. 우리같은 사람은 생활이 안돼요. (박)

국제결혼한 남성들과 가족들의 공통된 반응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요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다는 것이다. 친정식구들이 아프다거나 물건을 산다는 이유를 들어 남편과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요구에 대해 남편들과 가족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원망도 함께 자리잡고 있다. 또한 결혼이 잘못된 방식으로 유지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들은 내외적으로 경제적 갈등과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범위내에서 더 나아가 무리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등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을 위해 노력을 했다. 이들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이러한 요구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해체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동기가 상당부분 경제적 욕구충족으로 볼 때 가족해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에 온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경제적 욕구가 충족될 때 결혼의 의미를 갖음을 알 수 있다.

돈안준다고 지랄이었어요. 빚내서 50만원주고 패물가져가고 돈받을 궁리만 하고 눈아프다, 어디아프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잘못되었죠. (박씨 어머니)

명절때 다음 명절 때 온다고 갔어요. 친정에 주기적으로 돈 보내고 3-4번 토달 200만원정도. 내가 아들과 베트남에 같이 가서 20만원 주었어요. 일주일동안 있었어요. (신씨 아버지)

며느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토바이 좋은 것 안사준 것, 자기동생 병원에 있어서 150만원,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150만원, 오토바이 좋은 것은 200만원인데 남편에게 500만원 신청했더라구요. 저한테는 이야기도 안하고. (양씨 아버지)

가족의 입장에서 외국인 며느리에게 배려한만큼 해주었다는 주장과 함께 경제적 요구가 지나쳤음을 언급하고 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요구에 반응해줄 수 있는 한계를 밝히고 수용되어지는 범위내에서 결혼이 성립되어야 한다. 이들 결혼안에서 거래되는 교환의 의미가 충족되지 않을 때 결혼갈등은 자연스럽게 발생될 것이다.

2) 소통의 벽

'내막을 잘 모르겠어요. 부인의 뜻을 잘 모르니까 먼저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막상 잘해주려고 하는데 잘 안돼요. 살아가기 어려워요. (정)

부인이 한국말은 어느 정도는 했어요. 베트남연수도 받고 그때 내가 돈도 다 뺐거든요.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배웠어요. 중국이나 조선족은 한국말을 잘하는데 베트남은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이)

집에 오면 내내는 30-40분 동안 전화만 하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고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베트남선생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받는데 10시 넘으면 도움을 못 받아요. 문제는 대화를 진지하게 하지 못했어요. 사는 동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남성의 경우 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보다 못한 환경에서 왔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한국남성들은 부인의 한국어사용에 대해 당연시하고 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과 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양씨의 경우 통역을 통해서만 부인의 뜻을 알게 되고 그나마 통역시간의 제한으로 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부부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만 한국어습득을 요구하기보다는 부부간 서로 배우자국가의 언어를 터득하여 간단한 의사소통이라도 가능하도록 서로 노력하고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 대한 숙지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결혼해체의 신호탄: 가출

한달에 한번 나가고 일주일에 한번 나가고 그러더니 아예 나가서 오지 않더라고요. 민사소송 끝에 승소해서 끝났어요. (정)

부인이 하도 간다고 해서 서류를 던져주고 이거나 해놓고 가버려라 했죠. 이혼서류 준비했죠. 나간다고 밥먹듯이 말하니까. (박)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아내행동이 이상했어요.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친척을 초청해서 하게 되는데 결혼은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략))여권은 아내가 가지고 있고 외국인등록증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며느리가 아프면 병원 데려갈 때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아버지 수첩안에 가지고 다니셨어요. 아내가 나에게 외국인등록증을 훔쳐달라고 하였어요. 내가 직접 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했는데 며칠 후 아버지가 거실에서 잠잘 때 아내가 외국인등록증을 훔친 것이예요. 그리고는 아내태도가 달라졌어요. 얼마 안있어 나간거죠. 소식도 몰라요. (양)

가출을 예견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가출을 한 이후 결국 결혼은 종결되었다. 한달에 한번 나가고 일주일에 한번 나간 후 가출하여 영영 돌아오지 않고, 아예 가출하여 결혼을 끝내고자 할 때 서류로 이혼하여 결혼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해체방식은 가족을 물리적으로 떠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먼저 남편에게 이별을 선고하거나 불시에 가정을 떠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한 예고없이 결혼이 남편의 의도와 상관없이 종결되는 상황에서 남편과 가족의 입장에서 더 큰 상처와 당황스러움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대처하는데 법적 소송과정과 부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4) 결혼지속에 대한 불확신

왔을 때부터 안 살려고 한다는 것 느낌으로 알았어요. 보면 알죠. (정)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개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못해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개가 나간게 못한 것 같아요. 나한테 못한 것 없어요. 부인이 나를 잘해줬어요. (신)

근데 여름에 복지관에서 야유회에 갔어요. 대천해수욕장에 갔는데 직장문제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같이 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베트남 남자하고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이 흔들렸다고 생각해요. 집에 와서 잘 다녀왔다고 했는데 아무 이유없이 잘 지내다가 그렇게 되었어요.(가출했어요). (양)

결혼지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증거는 느낌을 통해 아는 남성이 있는 반면 어떤 원인으로 가출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경우로 다른 남성과 소통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나 여성결혼이민자가 더이상 결혼생활 안에 머물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해체에 대한 계산된 동기가 있는 것인지 남성의 주도적인 결혼유지능력의 부족인지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하겠다.

3. 삶의 전환

1) 버림받은 자

국제결혼을 막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컴퓨터 봐왔거든요. 이 지역이 가장 많데요. 당하고 보니까 여기도 500명 중 125명이 이혼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집이 더 그렇죠. 남자아이는 집에 놔두고 여자아이는 70%는 베트남에 데리고 간데요.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세 군데가 그런데요. 여자아이는 낳으면 70%는 다 데리고 간데요. 거기는 여자를 더 중요시 여긴데요. (이)

친구집에 놀러 갔다 올게 하고 그게 끝이에요. 여권, 소지품, 돈 다 가져갔어요. (박)

처음부터 걱정하고 온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나갔을까요? 나에게 잘해준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다음날 나가버렸다니까요. (양)

한국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떠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부간 차이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기회가 없었고 더욱이 자신들이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해체를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예견되지 않은 사건을 속수무책으로 당한채 남성에게 상처를 남기고 합리적 대처를 하기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2) 부모의 두꺼운 울타리

아버지가 어느 날 우리방에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베트남노래를 배우는데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열심히 적더니 가수여자가 춤을 추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손을 빙글빙글 돌리고 달려오고 몇차례 한 것을 보고 너하고 똑같다. 이 사람 너아니냐? 베트남 춤잘 추는데 뭐하러 국제결혼했니? 물었데요. 기분이 안좋으셨데요. 아버지가 핸드폰도 뺏고 인터넷뚜껑도 덮어버리니까 개가 막 울었데요. (신)

아내가 잡자기 필요한 것 말하면 아버지가 기간을 길게 잡아서 여름에 아내가 왔는데 가을에 해주겠다고 안심시켰어요. 베트남사람만나면, 8시까지 안들어오면 오토바이 안사주겠다고 겁주니까 아내가 스트레스받았더라고요.((중략))아내가 반찬투정을 했어요. 밥도 못 먹고, 베트남음식도 한번씩 먹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한국문화에 빨리 익숙해져야지 베트남음식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어요. (양)

한국남성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주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 공백을 남성들의 부모가 채워주곤 하였다. 여성들이 혼자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감독과 여성이 원하는 것에 대한 협상과 거래, 강압적인 동화를 유도하였

다. 이를 한국가족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장자에 대한 공경 등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새로운 문화권에서 시아버지의 지나친 관여와 간섭은 결혼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반찬 다 만들어주고 그래도 싫다고 하니... , 내가 자전거도 사줬어요. 오토바이 사주라하니깐 며느리가 됐다고. (이씨 어머니)

자전거도 사줘서 그랬더니 자전거도 잘 타요. 오토바이 사주라? 물어보니까 아뇨하고 대답했어요. (신씨 아버지)

학교에 갔다오면 그림보고서 몸소 보여주면서 대화소통이 가능해야 마음이 산만치 않고 문화생활도 취미도 행복도 하다고 간단히 내용은 체크했어요. ((중략)) 한달 반 살았는데 먹는 것을 전혀 먹지 못해서 베트남 쌀국수 사주고 시장에서 먹고 싶은 것 손가락으로 가리키라고 하면 돼지고기, 닭고기, 참외, 김치 등을 가리켜서 사서 가져와 밥과 반찬삼아 주었더니 잘 먹었어요. (양씨 아버지)

한결같이 한국남성 부모들은 외국인며느리에게 반찬을 만들어주고, 자전거를 사주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먹는 것도 손수 신경을 써주었다. 그러한 결과로 보답을 가져온 것은 며느리의 배신이었다. 자신들은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서로의 인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가 자신의 배려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며느리입장에서는 시부모의 관심과 배려가 부담과 간섭으로 여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연락책

인천의 친구들하고 연락이 되요. 한사람이 다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3번이나 찾으러 갔어요. 상처받고..... (박)

여기 애가 좀 그러더라고요. 사촌인가 육촌인가하고 전화통화하더니 가버렸어요. (신)

캠핑 다녀와서 일이 났어요. 강의도 안 듣고 남자하고 통화만 했다고 들었어요. 2-3일 후 가출했어요. (양)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모두 외부와의 연락책과 소통하고 있어서 집을 나간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남성들의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가족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외부와의 접촉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스컴이나 주변 이웃의 다른 사례들이 외부인과의 관계가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태도가 여성들을 더 통제하고 간섭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결혼생활에 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장사속만 채운 중개업자

이 여자 버리고 소개소에서 최대한 경비 들어가게 해준다고 또 그런식이면 어떻게 해요? 대답 안했죠. 내가 대답을 안했어요. 결혼비용이 1400정도 들어가고 내가 100정도 쓰고 한 1500했어요. 국가에 바라는 것은 없어요. (신씨 아버지)

결혼정보회사에서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면 아내문제라고 하는데 하나의 수법이래요. 6개월 안에 이혼한 예가 없대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정보회사인데 6명중 4명이 그렇게 되었어요. 밤에 전화는 안 되고 낮에는 바쁘다고 하고. 내가 위기상황이죠. 고소조건이네요. 김포공항에서 인제만 시켜놓고 (양씨 아버지)

결혼성립이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의 불성실한 정보제공과 관리시스템 즉 장사속만을 채운 것에 대해 피해자는 한국남성들이라고 하며 부모들은 분개하고 있다. 무조건 결혼성사만을 위해 이혼한 상태에 또다시 결혼을 권유하고 있다. 만나게만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등 책임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4. 삶속의 적응

1) 다양한 감정카드들

아기 찾고 부인 찾으려... 미운점은 아기만을 최대한 놔두고 가야하는데, 한국에 와서 말도 없이 사라진 것, 시부모님한테 말해서 오빠하고 도저히 못살겠다고 얘기 해야지. 그러면 안 믿죠. 전화도 없고 돈 벌고 있지. 애기만 보내주었으면 해요. 이렇게 배신때릴 줄을 몰랐어요. 요즘까지 울고 그랬어요. (이)

원래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가버리니까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중략)) 헤어진 것 후회는 없어요. 이 생활이 편하지는 않아요. 끝까지 갈려고 했는데 본인이 깨버리니까. (박)

나가기전 아내가 내일부터 성관계 매일 해준다고 했는데 다음날 9시 50분에 없어졌어요. 따로 살아야 하는데 집을 따로 얻지 못해서 갔는지? 친정에 돈 안 보내줘서 나간 것 같아요. 나 싫다고 나간것을 어쩔었어요? (양)

의도하지 않았고 자의적이지 않고 타의에 의해 결혼해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분노, 배신감, 안타까움 등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정에 간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행방불명이 된 상황에서 예고없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로 인한 후유증까지

있다. 또한 이혼한 부인에 대해 특별히 미운감정은 없으나 이혼에 대한 사무리를 확실히 해놓고 가기를 원했으며 부인의 빈자리에 대해 허전함을 표현하였다. 본인들의 결혼유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여성들이 집을 나가거나 이혼을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해체된 상황이어서 남성들의 당혹스러움과 자존감의 저하는 심히 크다고 하겠다. 본인의 선택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한 결정에 의해 자신의 삶이 좌우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구참여자 양씨의 경우 본인이 잘못해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자책까지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인과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 아닌 본인은 결혼유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 상태이나 일방적으로 결혼해체를 경험하게 됨으로서 상대배우자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서운함과 화남 등의 감정이 교차되고 있다.

2) 자녀의 미래걱정

여기 날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치민에서 집사람집이 건너거든요. 버스로 5시간, 배로 1시간 걸쳐서 처가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오후 2시, 집이 이런집이 아니고 바다위에 지어서 화장실도 개, 오리, 닭 키우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애기가 물도 좋은 물도 아니고. 내가 갈 때는 배 두 번 탔는데 지금은 한번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아이가 있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눈물을 보인다) (이)

애기 때문에 어렵다 테안벌려고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아이는 어머니, 동생, 저하고 키우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해야 할 것 다하고 있는데 애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박)

어머니없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자녀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누구를 막론하고 유사하다. 특히 어렵게 한 결혼에서 얻은 자녀여서 그런지 자녀에 대한 감사함은 컸다. 연구참여자 이씨의 경우 자녀를 부인이 데리고 가버려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베트남에 있는 좋지 않은 환경에 놓일 아이를 걱정하고 있으며 연구참여자 박씨의 경우 신앙적 관점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자녀에 놓인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걱정은 한마음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한 과제로 국제 미아가 된 자녀를 찾을 수 있는 접근방법과 한부모가족이 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역량강화나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서비스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미래를 바라봄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해야 사니까 '소 열심히 키우는 것'이 제가 할 것이죠. 허리수술을 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눈 수술 실패보고 전혀 안보이죠. 아무것도 안보이죠. 장애인 1급 수당 30만원 받아요. (정)

열심히 살아야죠.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혼자 40대까지 살았는데요 뭐 그때까지 혼자 살았는데요. (박)

오히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꿈이 아니고 큰 꿈, 전문가와 같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중인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직장생활하면서 하나씩 피곤이 겹치고..... (양)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허리가 아프고 시각장애인이임에도 불구하고 소를 키우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학업에 대한 의욕도 보이고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 그동안의 삶이 본인 의지와 다르게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실의 시기일지라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4) 외국인여성은 이제 그만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없으면 말고. 한국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죠. 외국인은 싫어요. (박)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하는데 안 할려고요. 결혼안할 거예요. 질려서. 처음 베트남에 가서 했는데 또 그런 사람 안 만날려고요. 안하고 싶어요. 처음에 베트남에 갔는데 또 그런 여자 만날까봐 안 할거예요. 재혼생각은 죽어도 없어요. (신)

재혼,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가 이혼준비중인데 아버지가 가는 사람 뭐하러 신경쓰느냐? 뭐하러 잘해주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셔요. 이혼하면 아내가 돌아온다고.....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양)

<표 2> 한국남성의 결혼해체에 대한 생애사 범주

범주	주제어
삶의 차원	부인의 끊임없는 경제적 요구, 소통의 벽, 결혼해체의 신호탄. 가솔, 결혼지속에 대한 불확신
삶의 전환	버림받은 자, 부모의 두꺼운 울타리,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연락책, 장사속만 채운 중개업자
삶속의 적응	다양한 감정카드들, 자녀의 미래걱정, 미래를 바라봄, 외국인여성은 이제 그만

재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여성과는 재혼에 대해서 재고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과의 긍정적이지 않은 결혼경험이 외국인을 재혼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한국인 여성 배우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자신이 원하는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남성의 결혼해체에 대한 생애사 범주에 대한 요약은 <표 2>와 같다.

V. 논의 및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차원들(영역)에서 해체이전 결혼생활의 경험들은 '부인의 끊임없는 경제적 요구', '소통의 벽', '결혼해체의 신호탄: 가출', '결혼지속에 대한 불확신'이라 할 수 있다. 결혼한 후 반복적이고 지나친 부인의 경제적 요구는 부인들이 한국에 온 주된 목표가 친정가족의 경제적 지원일 때 이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남편과의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기대불일치는 경제적 능력이 많지 않은 남편들과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부인과 대화도 어렵겠지만 이와 더불어 부인과의 소통방법을 알지 못한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없고 자연스럽게 부인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남성들은 직감적으로 알든 특별한 사유가 있든 해체후 결혼의 과정을 되짚어볼 때 결혼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은 일시적인 가출을 시도하고 결국에는 예고없이 가출하여 집에 장기간 들어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가출은 이혼이라는 결혼해체로 이어지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남편의 입장에서 상처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며 그들 인생과 가족안에서 또한번의 좌절을 맛보게 된다.

'결혼지속에 대한 불확신'은 한국남성의 입장에서 외국인부인이 한국에 와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반면 실제 모습은 돈이야기 하고 결혼에 몰입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 여성으로 인식하였다. 일부이기는 하나 결혼생활할 의도없이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2009)의 결과를 보면 한국인 남성들은 배우자의 가출 등 악의적 유기로 인해 이혼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도 특징을 보이는데 기타 사유중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가출로 인해 상담을 신청한 경우까지 합하면 전체 건수의 20%가량이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 이혼상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출을 통해 결혼이 해체된 상황이므로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 행동과 결과사이에서 여성이 결혼을 지속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 입국을 위해서 국제결혼을 이용하여 결국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김이선 등, 2010)고 한 결과를 볼 때 결혼지속의 실패요인이 일반적으로 한국남성이 가해자로서 보여지는 시각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또한 원인제공자가 여성 또는 남성인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하다.

또다른 요인으로 한국인 남성들은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혼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현저히 많았다. 여성결혼이민자 역시 생활양식과 가치관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한국인남편들의 경우 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사무소, 2009).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문화적 차이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등 기초적인 결혼준비를 하는 반면 한국남편들은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한 구체적 준비는 물론 그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김이선 등(2010)의 연구결과가 시사해주는 의미는 한국남성들의 국제결혼의 실패를 예고하는 듯하다.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특수하더라도 한국남성의 인식의 변화와 노력없이는 문제가 예고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참여자들의 삶의 전환은 해체를 결정하도록 전환점을 갖게 한 선행조건들과 전환점이 된 주요사건들로서 '버림받은 자', '부모의 두꺼운 울타리',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연락책', '장사속만 채운 중개업자'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한 후 지속적인 경제적 요구를 해왔고 한국남성과 가족들은 그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갈등과 부담을 느껴왔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경제적 요구의 미충족은 결혼해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편과의 상의없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남편과 가족들은 당혹스러워 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남성들은 이런 상황을 부인에 대해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관여가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능력부족과 부모의 통제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남성들을 볼 수 있으며 시부모입장에서 배려일지라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는 결혼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남성의 부모들은 이점에 대해 자신의 아들이 부족하고, 며느리가 외부와의 접촉 즉 모국인의 커뮤니티와 연락을 통해 가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이혼 사유가운데 유기 내지 무단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한국인 남편들이 상담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요인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등, 2010). 본 연구에서도 한국남편도 모른 상태에서 결혼이민자가 자녀까지 본국으로 데려가 사라지는 경우로는 부모로서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결혼이민자의

특성상 무단가출한 결혼이민자의 연고지를 가족들이 알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이혼진행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같이 이혼과정중이거나 이혼한 부부간에 자녀에 대한 권한을 둘러싸고 국경을 넘어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룰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다문화가족만 애티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과 결혼동기의 차이는 경제권과 부양가족의 문제 그리고 서로의 진정한 결혼의 목적에 대한 회의를 낳는다고 한 문경연(2010)의 연구처럼 점차 심해지는 갈등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출을 감행하며 남성들은 아내의 가출에 대해 가출신고와 이혼소송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한국법률상담소(2009)의 자료에 의하면 가족간 갈등이 남편상담 중 비교적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한국남편들이 부모가 많이 관여하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 부모의 지나친 관여가 배우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외부와의 관계를 막기 위해 친구를 만나거나 한국어교육을 반대, 방해, 감시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관심의 결과이자 국제결혼한 한국남성들이 그동안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오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부부에 대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같이 호흡하는 부모세대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개입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다문화가족의 심각한 갈등요인은 결혼과정에 들어간 비용과 여성결혼이민자 친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문제이다. 특히 한국남성과 그 가족들은 결혼 후 이들 여성의 친정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요구를 모두 지적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후 친정에 대한 송금문제는 부부 각자의 입장 차이를 읽을 수 있는데 부인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편을 신뢰하기 힘들며 남편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 자신이 일을 해서라도 친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김이선 등, 2006). 남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가족을 중요시하여 친정만을 위해 경제적 요구를 하는 부인에 대해 비난하는 태도를 갖고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는 등 서로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해체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이혼이나 사별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이혼이후에도 사회경제적 생활이나 가족 및 친구관계 등이 급격하게 변화되지는 않지만 상당한 우울감과 정신적 고통을 한국인 남성들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이선 등, 2010).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해체를 경험한 경우 분노와 배신감, 좌절감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가족들의 심리정서적 고통 또한 매우 심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다(김이선 등, 2010).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남편의 입장에서 자신의 결혼해체가 가족들에게 미안함으로 작용하여 가족내 자신의 위치에 대해 위축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토로할 대상도 장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정신건강의 손상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회적으로는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대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적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심리상담제공서비스가 결혼해체후 남아있는 한국남편들과 가족들에게 활발히 제공되어야 하겠다.

자신들이 선택한 삶에 적응하는 모습은 해체후의 각자의 고유한 적응양식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감정카드들', '자녀의 미래걱정', '미래를 바라봄', '외국인여성'은 이제 그만'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남성들은 자발적으로 결혼해체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더 남겨진 자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결혼을 위해 금전과 시간을 투자한 상황에서 부인이 일방적으로 떠난 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결혼해체를 당한 한국남성들의 감정은 분노와 배신감과 함께 부인이 떠난 아쉬움 등의 복합적인 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주변화된 인물로서 국제결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록 낯선 여성이지만 결혼을 잘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었음에도 또 한번의 소외를 경험한 결과를 가져왔다. 다행스러운 것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각오가 있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안도감을 준다. 재혼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으나 모두 외국인여성과의 부정적인 결혼경험으로 외국인여성과의 재혼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혼해체후 한국남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후 남성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 자녀양육은 대체적으로 조부모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도시에 비해 보육시설 및 교육서비스가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결혼이민자나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들의 경우 적절한 양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학습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이선 등, 2010)고 한 연구결과처럼 생계현장에 나선 한국남편들에게는 자녀 양육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양육자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자녀에게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학습지원프로그램, 학습돌보미, 방문교육지도사 등과 같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녀의 결혼해체를 경험한 부모들은 다함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무책임성과 상업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양한 층의 중개인들은 여성들에게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들을 속이기도 한다는 문경연(2010)의 결과처럼 중개업자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한 경우 가족해체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규제법률이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

호를 받을 수 있다거나 대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적인 증개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제결혼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두국가간, 다국가간의 공동대응방안이 필요하므로 함께 해결해나가는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분석과 재해석을 토대로 결론과 제언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남성이 국제결혼을 할 때 결혼진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남성의 주장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요구가 결혼동기이나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결혼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율이 있어야 하겠다. 만일 한국남성과 결혼중개업체의 결혼성사에 대한 욕심으로 또는 결혼중개업체의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가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남성에게 주어졌을 경우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체의 중요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전에 서로의 기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원하는 상대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추후 부부갈등이나 결혼해체를 예방하는 길이라 여겨지며 이를 위해 결혼진정성을 위한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인터뷰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행중인 대만의 TECO가 채택하고 있는 부부인터뷰(커플당 개별인터뷰)를 제도화하는데 참조할 만하다.

또한 가족해체우려가 큰 이들의 배우자비자신청자격을 일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김이선 등, 2010)는 선행연구의 언급처럼 상습적으로 배우자비자신청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력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일시적인 비자신청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남성의 국제결혼해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결혼준비도가 갖춰져야 한다. 한 예로 국제결혼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제적 무능력은 한 사회의 성인남성, 한 가정의 남편,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내는데 역부족으로 결과적으로 결혼의 시작부터 부모에 의존하여 결혼생활에서도 부모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부모가 개입된 결혼생활은 한국남성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는 결혼의 지속성문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남성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결혼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한국남성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라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외국에서 온 부인과 의사소통과 문화간 차이를 느끼는 것에서 부부로서 서로간 기대충족과 갈등해결 등의 방법을 얻을 기회와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각종기관을 통해 (예비)부부관계 교육이나 상담 등이 진

행되고는 있으나 국제결혼초기부부의 해체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을 위한 집중적인 부부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중적인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이 관련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상담, 자조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남편대상교육, 상담,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비자발적으로 가족이 해체된 한국남성을 위한 정서적, 정신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개입과 지지가 필요하다. 이들의 가족해체방식은 자신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출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법이 없고 그 충격을 해소할 기제가 존재하지 않아 좌절감과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들의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신보건서비스와 개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물리적인 접근도 기본적으로 중요하나 이들이 미래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하는데 내적치유의 과정 즉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간과되서는 안될 것이다. 해체된 경우 이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정서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조집단을 통한 관계망 형성 등 역량강화프로그램 실시와 가족해체 경험 남편들의 회복을 위한 실천가의 사례관리계획과 실행이 보다 서비스대상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넷째, 자녀가 있는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녀를 데리고 본국에 가서 자녀와 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한국남성의 경우 부인과의 해체절차나 미아가 된 자녀를 찾아주는 제도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이혼이나 가족관계정리가 국경을 넘어서 진행되는 만큼 상대국가의 이혼절차와 가족관계정리에 대한 실천가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주시시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체 당사자들이 이를 통해 해체절차와 과정을 명확히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책자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인 부인의 가출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되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부모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녀양육비, 돌봄지원체계확충과 돌봄자원연계,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방문지도나 언어지도사 서비스외에 자녀발달 및 치료 지원서비스가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해체된 다문화가족개입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적기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해체된 가족을 위한 개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양육정보나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이들을 위한 서비스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며 경제적 독립,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 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포괄하는 지원서비스의 발굴과 확대와 함께 센터중심의 현행 서비스의 전달방식 또한 다변화되어야 한다. 즉 현행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와 직접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적용함으로써 해체전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전달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만이 해결책이 아니며 행복한 결혼유지와 지속을 위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해체가 발생되기 이전에 한국남성들은 배우자에 대한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잘살아보자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생활을 하나 여성들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실망감을 표출한다. 극단적으로 자신이 사기결혼, 위장결혼이라는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여기며 여성들의 가출로 극단적으로 형상화되는 가정에 대한 소홀함을 한국남편들은 가출신고와 이혼소송계기로 되짚는다(문경연, 2010)는 연구결과가 보여준 것 등을 종합해볼 때 새로운 각오로 시작된 결혼이 지속하기에 남편 개인의 노력,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에 대한 성실성, 사회의 지원, 제도적 뒷받침 등이 있을 때만이 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부적으로 드러난 조건들과 실제 결혼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동들은 복잡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해체는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데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은 부부갈등과 이혼과정동안 경험하는 사회적 원조 및 중재를 모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이혼후 기초생활보장 및 경제적 자립, 자녀양육지원 등 이전정책제안과는 다른 보다 현실적인 제안들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개인생애의 중대한 선택이자 결정인 이혼과 다문화라는 혼재성을 통해 결혼해체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한국남성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일방적인 가해자로서 여성결혼이민자도 피해자로서 비취지는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며 해체를 예방하고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가족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해체가능성과 위기에 처한 국제결혼부부를 위해 위기개입프로그램과 부부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 및 중재를 시도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해체 후 다문화가족내 자녀발달과 양육과 적응양상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발달과정을 추적해보는 시도가 있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 319-359.
- 김두섭·이명진(2007). 국제결혼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33-56.
- 김오남(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5.
- 김정훈(2007). 결혼이민자 남편과 부인의 가계관리 태도비교-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185-1195.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 및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마경희·선보영·최호림·이소영(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 문경연(2010). '국민의 배우자'를 벗어난 여성들: 한족결혼이주 여성들의 이혼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재규(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농촌사회*, 17(2), 1-20.
- 박재홍(1992).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한국사회사 연구. *한국산업사회의 현실과 전망*, 38, 257-296.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장은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엄명용(2010).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남편에 대한 생애사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261-298.
- 유대균 역(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Padgett, D.K. (1998). *Qualitative Method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서울: 나남출판.
- 채옥희·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채옥희·홍달아기(2008). 피해사례를 통해 본 결혼이민자 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91-902.
- 최금해(2007). 조선족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2(1), 143-188.
- 최연실·이순형·문무경(2008).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발달과 적응. *인간발달연구*, 15(3), 225-248.

- 통계청(2010). 2009년 이혼통계.
- 한경혜(2004). 생애사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 <http://www.lawhome.or.kr/>
- Bahr, H. M.(1981). Religious intermarriage and divorce in Utah and the Mountain Stat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0(3), 251-261.
- Blumel, S. R.(1992). Explaining marital success and failure. In S. L. Bahr (Ed.), *Family research: A review from 1900 to 1990* (pp. 1-114). N.Y.: Lexington Books.
- Fu, X. (2000). Inter-racial marriage and status exchange: A study of Pacific Islanders in Hawaii from 1983 to 1994. *Pacific Studies*, 22(1), 51-75.
- Fu, X., Tora, J., & Kendall, H.(2001). Marital happiness and inter-racial marriage: A study in a multiethnic community in Hawaii.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2, 47-60.
- Fu, X.(2006). Impa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inter-racial mate selection and divorce. *The Social Science Journal*, 43, 239-258.
- Goodman, K. L.(1991). *Racial and religious intermarriage. Research Information Division, LDS Church. Unpublished Work.*
- Guba, E. G. & Lincoln, Y. S.(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pp. 105-117). Thousand Oaks, CA: Sage.
- Heaton, T. B.(1984). Religious homogamy and marital satisfaction reconsidere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729-733.
- Liebich, A. Truval-Mashiach, R. & Zilber, T.(1998).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 Mendelbaum, G.(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3), 177-206.
- Patton,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 Preston, S. H.(1997). Comment on Steven Ruggless. The rise of divorce and separation in the United States, 1880-1990. *Demography*, 34(4), 473-474.
- Rustin, M. & Chamberlayne, P.(2002). Introduction from biography to social policy In Chamberlayne, Rustin and Wengraf eds. *Biograph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Experiences and life journeys.* The Policy Press.
- Shehan, C. L. Bock, E. W., & Lee, G. R.(1990). Religious heterogamy, religiosity, and marital happiness: The case of cathol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73-79.
- White, L. K. (1990). Determinants of divorce: A review of research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04-912.

접수일 : 2011년 05월 14일

심사일 : 2011년 06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1년 07월 25일